

# 아일랜드의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

최은영 부연구위원

아일랜드의 유아교육과 보육 서비스는 80% 정도가 사립기관에 의존하고 있으며, 매우 다양한 종류의 기관이 존재한다. 최근에는 무상 프리스쿨 제도를 도입하여 모든 유아에게 일정시간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교육·보육료로 접근성이 떨어지고 부모가 재정적 부담을 가지는 문제점이 있다. 기관의 종류는 다양하나 모든 기관은 유아교육법령에 의해 동일하게 규제를 받는다. 아일랜드의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의 특징인 취학 전 2년간 공교육 시스템 안에서의 의무교육 이행, 0-6세 유아교육·보육과정, 질 관리 시스템의 통합 운영 등은 우리나라에서 현재 진행 중인 유보통합의 추진 과정 및 향후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의 방향 조망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1. 유아교육과 보육 서비스 현황

### 가. 유아교육·보육 서비스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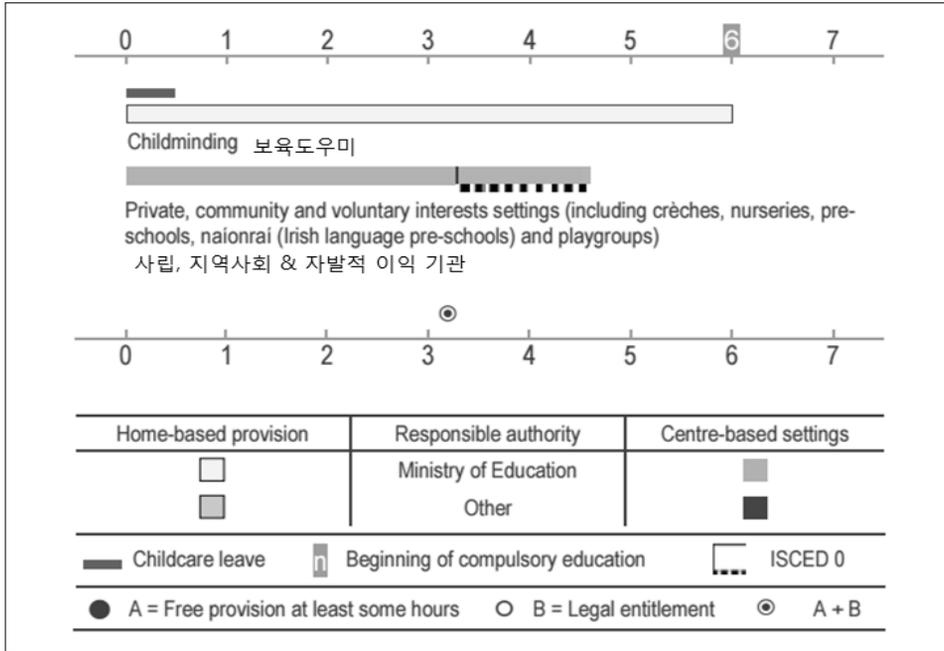
아일랜드에서의 유아교육·보육은 일반적으로 형식적인 학교교육이 시작하기 전이나 학교에 출석하도록 요구되기 전 연령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 보육을 말한다. 연령대로 보면 출생부터 6세까지를 일컫는다. 학교 입학에 관련된 법은 6세 이후부터 적용되지만 실제로 5세 대부분과 4세의 절반 정도는 실제로 초등학교 유아학급(infant class)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에 다닌다고 할 수 있다. 아일랜드의 유아교육·보육 서비스에는 초등학교 내 유아학급과 다양한 종류의 보육 및 프리스쿨 서비스가 속한다.

일반적으로 서비스는 1일 기준 5시간, 1주일 기준 5일 동안 제공된다. ECEC 계획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유아의 연령은 당해 9월 1일 기준으로 3년 2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4년 7개월 미만이어야 한다. ECEC는 아동청소년부(Department of Children and Youth Affairs)에서 관장하고 있다.

[그림 1]을 살펴보면, 육아휴직과 가정기반 서비스가 출생부터 6세까지 제공되며, 3-6세 보육과 0-6세 유아교육이 가능한 서비스가 존재함을 할 수 있다. 의무교육이 6세부터 시작하지만 의무교육이 시작되기 전에 유아들이 초등학교 유아학급에 다니기 시작한다.

아일랜드의 유아교육·보육 서비스의 유형은 크게 6가지로 나뉜다. 서비스 유형을 구분하는

\* 본 원고는 육아정책연구소의 세계유아정책동향시리즈 「아일랜드의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최은영, 정혜진, 송신영, 2015)에서 발췌하여 작성한 것임.



자료: European Commission/EACEA/Eurydice/Eurostat (2014). Key Data o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in Europe. p. 169.

[그림 1] 아일랜드 유아교육·보육 개요

것은 단순히 시작 시간이나 운영구조에 의해 구분되어지기도 하고, 기관이 실행하는 교육과정의 종류에 따라 구분되기도 한다.

첫째, 종일제 보육(full day care)은 하루에 3.5시간 이상 운영하는 구조를 지닌 서비스를 말하며, 3개월 이상에서 6세까지의 유아를 돌본다. 일부 시설은 방과후 시설을 포함하고 있기도 하다. 종일제 보육에서는 수면시간이나 음식준비가 아동가족국(Child and Family Agency)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종일제 보육 기관은 주간 보육시설(day nurseries)과 크레쉬(creches)를 포함하고 있다.

둘째, 시간제 서비스는 각 세션마다(예. 오전, 오후로 구별) 3.5시간까지 구성되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2-6세 사이의 유아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더 어린 연령의 유아에게도

제공할 수 있다. 시간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인된 자격증이 요구된다. 시간제 서비스에는 몬테소리 그룹, 부모 및 유아그룹, Naionari (유아학교), 놀이학교(play schools), 그리고 조기출발 프로그램(Early Start Programme)이 있다. 몬테소리 그룹은 유아의 발달을 최대화하는 개인별 교육, 사회적 기술에 대한 교수에 초점을 두고 있다. 부모 및 유아그룹은 부모, 보호자 혹은 보육자와 유아가 함께 와서 안내된 놀이와 부모를 위한 친교서비스를 제공한다. Naionari는 아일랜드어로 운영되는 유아학교(nursery school)이나 play school)이다. 놀이학교는 비슷한 연령대의 유아와 함께 놀이하기, 공유하기, 차례를 가지는 것을 배우거나 듣기와 같은 교실에서의 규칙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조기출발 프로그램은 3-4세 유아를 대상으로 취

약계층 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에서 선정된 학교가 제공하는 1년의 예방 개입체계를 의미한다.

셋째, 자신의 집에서 유아를 돌보는 보육도우미(childminders)가 있다. 한 명의 보육도우미는 6세 이하의 유아를 5명(보육도우미의 자녀를 포함)까지 돌볼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평일이나 일과 중에 특정한 기간 동안 운영된다. 부모와 보육도우미는 상황에 따라 시간과 조건을 마련할 수 있다. 국가 보육도우미 계획(National Childminding Initiative)의 일부로 보육도우미 개발보조금과 보육도우미에 대한 자료를 각 지역도지사나 지역 보육위원회(County Childcare Committee)로부터 얻을 수 있으며, 자신의 집에서 3명 이상의 유아를 돌보는 보육도우미에게는 세금 혜택을 주고 있다.

네 번째, Au pair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법률적인 정의나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주로 호스트 가족(host family)과 외국어를 배우러 오거나 나라의 문화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오는 외국인 학생 사이에 이루어지는 관계로 이해할 수 있다. 호스트 가족과의 계약은 때로 가사 도움을 포함하지만, 'au pair'는 전문적인 유모

나 보육도우미가 아니다. 하지만, 양자 간의 협약을 나타내는 au pair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고용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일반적으로 누가 고용주인지를 나타내는 데에는 계약법이나 고용법률이 적용된다.

다섯째, 단기보육시설(drop-in centres)은 낮 동안 2시간 이내라는 짧은 기간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시설은 종종 쇼핑센터, 레저센터, 혹은 숙소시설에서 제공된다. 이 서비스는 소비자나 클라이언트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되어 부모가 시설을 이용하거나 행사에 참석하는 동안 유아를 돌봐준다.

마지막으로, 학령기 아동의 보육을 들 수 있다. 학령기 아동을 위한 서비스에는 아침 클럽, 방과후 클럽, 여름캠프와 같은 학교방학 프로그램이 속한다. 서비스에 따라서 유아의 과제를 도와줄 수도 있고 계획된 활동이나 식사를 제공한다. 제공되고 있는 보육서비스 종류를 살펴보면, 전체 2,592개의 기관 중에서 99.7%의 기관이 기간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파트타임, 방과후 학교, 전일제 보육, 아침클럽 순으로 비율이 높다.

〈표 1〉 학령기 유아 대상 보육서비스 종류<sup>1)</sup>

Type of Service	2013		2012		2011	
	All	% of Overall (N=2,592)	All	% of Overall (N=3,137)	All	% of Overall (N=3,401)
Full Day Care	766	29.6%				
Breakfast Club	315	12.2%	230	6.8%	187	5.5%
Afterschool	783	30.2%	959	28.2%	926	27.2%
Sessional Service	2,585	99.7%	1,744	54.3%	1,942	57.1%
Part-Time care	792	30.6%				
Childminding(home-based)	21	0.8%	0	0.0%	31	0.9%
Drop-in/occasional care	67	2.6%				

자료: Department of Children and Youth Affairs(2014). Pobal Annual Early Years Sector Survey 2013. p. 8.

1) 전체 2,592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조사로 아일랜드 전수조사는 아니며, 보육기관의 종류가 한 기관 내에서도 공존함.

### 나. 유아교육·보육 서비스 이용 현황

아일랜드에서는 유아가 6세가 되면 의무교육이 시작되는데, 유아가 4세가 되면 초등교육(ISCED 1) 수준으로 간주되는 유아학급에 참여한다. 법적 자격은 3세 2개월부터 시작한다. 아일랜드의 유아교육·보육은 매우 탈중심화되어 있으며 여러 유아교육·보육 기관을 이용하고 있다. 크게 가정기반과 기관기반 서비스로 나누어 살펴보면, 가정기반 서비스보다 기관기반 서비스를 훨씬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3세의 경우 86.4%, 5세에는 96.6%가 기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2010년 아동청소년부는 유아교육·보육에서 무상 프리스쿨 제도를 소개하였다. 예전에는 취약계층의 유아만 무료로 프리스쿨을 이용하였는데 이 제도는 모든 유아들이 양질의 프리스쿨로부터 혜택을 받아야함을 인정하고 있다. 아일랜드에서는 대부분의 프리스쿨 기관이 사립으로, 높은 보육료때문에 많은 유아들이 프리스쿨 서

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프리스쿨 제공자는 유아당 지원금을 받고 있으며 기관은 지원을 받기 위해서 교사의 자격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그러나 무상 프리스쿨 계획을 시작한 이래 운영하는 기관들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전에 비해 기관에 참여하는 유아 수가 늘고, 교사의 자격 수준이 향상되었지만 유아당 지원받는 금액은 변화가 없어서 향상될 필요가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다. 초등학교 내 유아학급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4세 이하의 경우 낮은 연령대의 유아학급(junior infant class)을 이용하다가 다음 해 높은 연령대의 유아학급으로 이동한다. 5세의 경우, 낮은 연령대의 유아학급 이용 유아가 늘어나는 것은 다른 교육·보육기관을 이용하다가 5세에 초등학교 내 유아학급으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출생 후부터 1년까지는 기관을 이용하는 유아의 수가 현저히 적으며 1세 이상이 되면 전일제

〈표 2〉 유아교육·보육 서비스 이용률(2011년 기준)

단위: %						
	1세미만	1세	2세	3세	4세	5세
가정보육	0.9	5.6	5.2	1.5	0.9	0.7
기관보육	1.6	20.2	42.0	86.4	95.6	96.6

자료: European Commission/EACEA/Eurydice/Eurostat (2014). Key Data o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in Europe. p. 169.

〈표 3〉 초등학교 내 유아학급 이용 유아 현황

	유아학급		1학년
	Junior infant class	Senior infant class	
4세 이하	24,279	2	
5세	46,528	24,723	2
6세	843	45,934	25,035
7세	12	1,056	44,116

자료: Department of Education and Skills (2016). Annual Statistical Report 2014/2015, Table 2.1

〈표 4〉 보육 종류 및 기간에 따른 이용 현황

	Full-Time (≥5 hours)	Part-Time (3hrs31mins-5hrs)	Sessional (3hrs30mins or less)	Total by Age Category
Babies(up to 1 yr)	1,561	609	449	2,619
Toddlers (1 and 2 yrs)	5,527	4,140	1,758	11,425
Pre-schoolers (3-5 yrs)	8,934	9,922	40,275	59,131
School age (6-14 yrs)	N/A	6,140	5,562	11,702
Total Overall	16,022	20,811	48,044	84,877

자료: Department of Children and Youth Affairs(2014). Pobal Annual Early Years Sector Survey 2013. p. 11.

나 파트타임제로 기관을 이용하기 시작하는데, 동일연령 유아 대비 15% 정도가 기관을 이용한다. 3-5세 유아의 80% 이상이 기관을 이용하는 데, 기간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높다.

## 2. 유아교육과 보육 재정 지원

### 가. 유아교육과 보육 재정

아일랜드에서는 초등학교급에 주정부가 주로 투자하지만, 초등학교 이전의 유아학교(pre-school)의 대부분은 민간에 의존하고 있다. 민간서비스 제공자는 현재 4,000개 기관이 보건 서비스 행정(HSE)에 등록되어 있다. 유아교육에 대한 정부의 투자는 주로 아동청소년부(Department of Children and Youth Affairs)에 의해 이루어진다. 유아교육과 보육(ECCE) 제도로 무상 유아학년(pre-school year)이 2010년 1월에 도입되어 아동과 청소년 담당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다. 무상 유아학년(pre-school year) 제도의 목적은 초등학교를 시작하기 전에 중요한 발달적 시기에 있는 모든 아동이 형식적 환경에서 조기 학습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등록 자격이 있는 아동에게는 개인별로 요금이 지급된다. 2012년 아동과 청소년 담당 부서에서는 이 제도에 175만 유로를 투자했다.

무료 유아학년 제도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보육 보조금(CCS) 프로그램에의 참여도 가능하다. 교육기술부(Department of Education and Skill)에서는 특수한 취학전 서비스에 재정을 지원하기도 한다. 여기에는 도시의 취약지역의 40개 초등학교에 시작된 Early Start 프리스쿨 프로그램이 포함된다. 이 프로젝트는 전반적인 발달을 강화하고, 학교 실패를 예방하며, 사회적 불이익의 효과를 상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연간 소요되는 비용, 재료, 부모 참여 비용이 지급된다. 2012년 해당 취학전 프로그램에 교육기술부에서 6만 유로를 투자했다.

### 나. 유아교육비와 보육료

ECCE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입학 전 해에 발달에 적합한 프로그램-기반 활동으로 구성된 무상 유아학년을 아동에게 제공한다. 아동이 유아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최초의 공식적인 학습을 경험하는데, 이것은 가정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및 사회 발달의 출발점이 된다. 유아교육을 받는 아동은 학교와 공식적 학습 및 사회적 환경에 더 많은 준비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아동은 무료 유아학년에 등록할 자격이 주어진다.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경우 조건을 충족하면 2년 동안 이용

할 수 있다.

아동가족국(Child and Family Agency, 이전 보건사업부 Health Service Executive)에 신고되거나 아일랜드 몬테소리 교육위원회(Irish Montessori Educational Board)에 등록된 유아교육 기관은 4,500개가 있다. 이러한 모든 기관들이 ECCE 프로그램에 참여 지원 자격이 있다. 참여하고 있는 유아교육 기관 목록은 시·도의 아동보육위원회(CCC)를 통하여 부모가 열람할 수 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동보육 서비스는 특정 연령 아동에게 연령에 적합한 활동과 프로그램이 제공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아동의 자격 요건에 연령 상한 범위와 하한 범위를 설정하고 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유아교육·보육 기관은 자격요건을 갖추어 등록한 각 아동에 대한 학비를 지원받는다. 유아교육·보육 기관은 프로그램에 등록된 각 아동에 대한 세부사항을 관련 부서(Department)에 보고해야 하며, 학부모는 이러한 세부 사항들에 대한 증빙 자료를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게 된다.<sup>2)</sup> 이에 따라 유아교육 기관은 무료로 부모에게 발달에 적합한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유아교육 프로그램은 38주 동안(9월에서 차기년도 7월까지) 일반적으로 하루에 3시간, 일주일에 5일 제공되며, 개인별 주당 학비는 62.50유로이다. 자녀를 주당 5일 미만으로 등록한다면 프로그램 제공자에게 지불할 개인별 학비는 pro-rata basis에 따라 줄어들게 된다.

Early Start 프로그램의 유아학년은 초등학교의 빈 교실에 수용하고, 초등학교의 중요한 부분으로 간주되며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 유아교육과 보육 기관은 미취학 유아에게 무상으로 1년간 교육과 보육을 제공한다. 또한 아일랜드 정부는 ECCE에 참여하는 놀이방과 데이케어 기관

에 고정 수당(capitation fee)을 제공한다. ECCE에 참여하는 기관들은 해당되는 연령의 모든 아동들에게 정해진 시간만큼의 교육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ECCE 계획에 따라 제공되는 보육기관 및 데이케어 서비스는 비용이 없다. 그러나 자녀가 정해진 시간 외 추가적인 교육시간을 이용할 경우, 그 추가 시간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유아교육과 보육기관은 추가 활동에 들어가는 비용을 부모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 이러한 추가활동은 선택적이어야 하며, 추가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아동들을 위해서도 적절한 활동을 제공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부모들에게 추가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요구할 수 있다. (a)선택 사항인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 (b)적합한 프로그램-기반 활동이 선택 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어느 아동에게 제공되는 경우이다.

선택사항인 부가 서비스는 견학, 댄스나 음악과 같은 특정한 교수 자료 등 다양한 형태가 가능하지만 일반적인 미술활동이나 공예활동과 같이 유아교육 기관에서 교육과정의 일부로 정상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활동들은 포함되지 않는다. 서비스는 무료 유아교육 제공 시간 이외의 추가 시간에 대해서도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부가 서비스나 추가 시간은 부모가 선택하는 경우에만 제공되며, 이러한 선택사항들의 이용 여부 부가 유아교육 서비스(pre-school service) 등록 조건은 절대 아니다. 일반적으로 데이케어 및 시간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비용은 38주 동안 매주당 62.50유로이지만 보다 우수한 자격이 있는 교사를 보유한 데이케어 및 시간제 서비스의 경우 38주 동안 매주 73유로씩 받을 수도 있다.

2) 출생증명서나 여권 사본, 아동의 아일랜드 PPSN의 공식 증명서 사본으로, 아동의 이름과 PPSN을 보여주는 공식 서류 사본이나 의약품 지불 카드, 의료카드나 사회보호부에서 온 증서(letter)와 같은 카드 형식을 취할 수도 있음.

### 3. 유아교육·보육 프로그램

#### 가. Aistear: 유아교육과정의 틀 (the Early Childhood Curriculum Framework)

2009년 10월, 국가교육과정평가위원회(National Council for Curriculum and Assessment)는 유아교육과정의 틀(Aistear: the Early Childhood Curriculum Framework)을 발간하였다. Aistear는 아일랜드어로 ‘여행’을 뜻하는 말로 0세에서 6세까지의 유아를 위한 것이다. 가정, 보육도우미, 종일제 혹은 파트타임 보육, 기간제서비스, 초등학교 내 유아학교와 같은 다양한 유아교육기관에서 이용할 수 있다. 유아는 동시에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틀은 유아 학습과 발달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4가지의 상호 연관된 주제(themes)인 웰빙, 정체감과 소속감, 의사소통, 탐색 및 사고를 사용한다.

또한 Aistear는 놀이의 중요한 역할, 유아 학습을 위한 관계성과 언어를 강조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Aistear는 놀이, 상호작용, 부모와의 파트너십, 유아의 학습과 발달 과정에 도움이 되는 평가를 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한다. 이 틀은 초등학교 교육과정과도 내재적, 외재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0세에서 6세까지의 유아에 초점을 두고 있는 Aistear는 국가교육과정평가위원회가 초등학교교육과정을 계속적으로 리뷰하고 유아학습과의 계속성과 성장을 지원하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 나. Early Start Program

Early Start 프로그램은 프리스쿨 1년 과정으로 취약하다고 판단되어 선택된 도시에 만들어

지는 예방 프로그램이다. 40개의 Early Start 프로그램에 의해 제공되는 학습 수는 1,650개이다. 교육기술부에 의해 관리되고, 재정지원을 받으며, 평가되는 프리스쿨 프로그램으로 목적은 학교 시스템 안에서 유아의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했거나 취약하다고 판단된 유아를 대상으로 교육적 불평등에 대항하는 것이다. 유아는 기관에 입학하는 해 9월 1일 기준으로 3년 2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4년 7개월 이하여야 한다. 유아는 Early start 프로그램이나 무료 프리스쿨(Free Pre-school Year Scheme) 중 하나에 등록해야 하며 두 프로그램을 동시에 이용할 수는 없다. Early Start 프로그램의 목적은 유아의 전반적인 발달을 도모하고 학교에서의 실패를 막을 수 있는 교육적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것과 사회적 불평등의 효과를 상쇄하는 것이다. Early Start 프로그램의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다.

〈표 5〉 Early Start 프로그램의 기대 효과

- 유아가 학습 능력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도록 한다.
- 유아의 동기가 부여되고 잘 조직되고 적절한, 독립적인 행동으로부터 학습스타일을 발달시킬 것이다.
- 유아가 이후 학교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언어, 인지, 사회적/개인적 능력을 발달시킬 것이다.
- ‘놀이를 통한 학습’ 접근법이 유아에게 긍정적이며 재미를 가져다 줄 것이다.
- 유아의 부모가 자녀의 교육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다.

Early Start 프리스쿨은 초등학교의 빈 교실에서 운영된다. Early Start는 초등학교의 한 부분으로 인식되며 학교의 관리·행정서비스로부터 도움을 받는다. 한 유닛에 총 60명의 유아가 있으며 절반 유닛에는 30명이 이용한다. 교사 1명과 보육직원이 9시부터 11시 30분까지 유아 15명을 돌보며, 다른 15명은 12시부터 14시 30분까지 관리한다. 보통 한 유닛에는 교사 2명, 보

육직원 2명, 자원봉사자 부모가 함께 한다.

본 프로그램의 교육과정은 4가지 핵심영역인 언어, 인지, 사회성, 인성 발달을 우선시한다. 이는 유아를 구조화된 놀이 활동에 참여시키고, 핵심 영역에서 유아의 발달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놀이 활동을 할 때, 교사는 각 유아에게 구체적인 학습 목표를 세운다. 놀이와 긍정적인 성인-유아 상호작용은 Early Start 활동의 토대가 된다. Early Start 프로그램을 마친 유아는 유아학급(junior infant class)으로 옮겨간다. 교사는 모두 초등학교 교사 자격을 지니고 있다.

Early Start 프로그램의 비용은 교육기술부에서 지원하며, 1년 기준으로 한 센터당 교재나 설비를 갖추는 데 한 유닛에는 2,539유로, 절반 유닛에는 1,523.69유로를 지원하며 부모참여를 위해서 한 유닛에 1,904.60유로, 절반 유닛에 952.30유로를 지원한다. 또한, 1년 기준 1인당 95.23유로씩 학교관리위원회에 지원하는데 이는 센터의 일상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금액이다.

## 4. 질 관리 시스템

### 가. 개요

아일랜드에서는 프리스쿨(pre-school) 서비스의 규제와 점검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 보육법 1991(Child Care Act 1991) 하위의 아동가족국법 2013(Child and Family Agency Act 2013)에 의해 수정된 내용에 따라, 아동가족국(Child and Family Agency)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프리스쿨 유아의 건강, 안전, 그리고 웰빙을 보장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법에 의하면 프리스쿨 유아는 “국립학교나 동등한 기관을 다니지 않는 6세 이하의 유아”를 뜻한다.

프리스쿨 서비스에는 프리스쿨, 놀이그룹(play groups), 보육시설(day nurseries), 크레쉬(creches), 보육도우미, 그리고 3명 이상의 프리스쿨 유아를 돌보는 보육돌보미 서비스가 속한다.

프리스쿨 서비스 제공자는 아동가족국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려야 한다. 또한, 제공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프리스쿨 유아의 건강, 안전, 웰빙에 대한 측정을 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프리스쿨 보육에 대한 법률은 보육법 2006과 보육법(개정본) 2006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이 법률은 서비스 제공자가 갖추어야 할 건강, 안전, 웰빙에 대한 높은 수준의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보면, 유아 및 청소년 업무부(Department of Children and Youth Affairs, DCYA)는 이러한 법률과 관련 정책을 개발하는 책임을 맡고 있으며, 아동가족국은 프리스쿨 보육서비스를 점검하고, 규제하며 프리스쿨을 선택하는 안내서를 발간해야 한다.

법령에 제시된 프리스쿨 서비스에는 다양한 종류가 속한다. 기간제 서비스(놀이그룹, 크레쉬, 몬테소리 그룹, naionrai(유치원), 3명 이상의 유아에게 기간제 프리스쿨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도우미, 파트타임 보육(part-time day care, 1일 3.5시간 이상 5시간 미만의 서비스를 제공), 종일제 보육(full day care, 1일 5시간 이상의 보육을 제공하며 day nurseries와 creche가 포함됨), 단기간 프리스쿨 서비스(pre-school service in a drop-in centre)가 포함된다.

### 나. Síolta, 유아교육을 위한 국가 질 관리 체계(National Quality Framework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Síolta, 유아교육을 위한 국가 질 관리 체계(National Quality Framework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는 교육기술부(Department of Education and Skills) 관할 하에 있는 유아발달교육센터(Centre for Early Childhood Development and Education)에서 개발되었다. 2006년에 처음 제정되었으며 이후 3년의 개발과정 동안 유아보육 직원, 교사, 부모, 정책입안자, 연구자나 다른 관심 있는 집단들을 대표하는 50개의 다양한 조직들과 협의과정을 거쳤다. 2008년 이래, 교육기술부에 있는 유아교육정책부서(Early Years Education Policy Unit)가 Siolta의 실행을 책임지고 있다.

Siolta는 신생아부터 6세 유아가 있는 모든 종류의 유아교육·보육 기관(early childhood care and education, ECCE)의 실제에 대해서 질 개선에 대해 정의내리고, 평가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고안된 것이다. 유아교육·보육 기관에는 종일제와 파트타임 보육, 보육도우미, 기간제 서비스, 초등학교에 있는 유아학급(infant classes

in primary schools)이 해당된다. Siolta는 세 개의 구별된 그러나 상호 관련된 요소인 원리(principles), 기준(standards), 질의 구성요소(components of quality)로 구성되어 있다. 12개의 원리는 질 관리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비전을 제공하는 것으로 유아교육의 질에 관련된 실제와 서비스를 위한 지표 역할을 한다. 16개의 기준은 실제의 영역을 포함하며 원리에 나타났던 질에 대한 비전을 실제에 적용하는 것이다. 75개의 요소는 Siolta를 실행하는 모든 직원을 위해 질 관련 지표를 제공하는 것이다. 기준(Standard)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것으로 더 집중적이고 구체적으로 나누어진다.

16개의 기준은 '유아의 권리, 환경, 부모와 가정, 의논, 상호작용, 놀이, 교육과정, 계획과 평가, 건강과 복지, 조직, 전문적 실제, 의사소통, 전이, 정체성 및 소속, 법률 및 규제, 지역사회 참여'로 구성되어 있다. 각 기준 아래 관련 요소

〈표 6〉 Siolta의 12개 원리(Principles of Siolta)

원리	내용
유아기의 가치	유아기는 인생에서 중요하고 특별한 시기로 유아 자신만의 권리 안에서 육성되고, 존중받아야 하고, 가치를 인정받아야 하고 지원되어야 한다.
유아가 먼저	유아의 개별성, 강점, 권리와 필요는 유아기 경험의 질 영역에서 매우 중요하다.
부모	부모는 유아에게 주된 교육자이며 유아의 웰빙, 학습, 발달을 도모하는데 탁월한 역할을 가지고 있다.
관계	시간에 걸쳐 일관되게 이루어진 수용적, 민감적, 상호적 관계성은 유아의 웰빙, 학습과 발달에 필수적이다.
평등	평등은 유아보육과 교육의 질에서 필수적인 요소다.
다양성	질 높은 유아교육환경은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모든 유아와 가정이 그들의 개별적, 문화적, 언어적 정체감을 가지도록 보장한다.
환경	유아의 물리적 환경은 그들의 웰빙, 학습과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복지	유아의 안전, 복지, 웰빙은 모든 유아환경에서 보호되고 장려되어야 한다.
성인의 역할	성인은 질 높은 유아경험을 제공하는 근본이다.
팀워크	질 높은 유아경험을 제공하는 것은 협력, 의사소통과 상호존중을 요구한다.
페다고지	유아기의 페다고지는 유아의 발달과 학습에 대해 총체적인 접근을 취하고 보육과 교육의 불가분의 성격을 반영하는 프로그램으로 표현된다.
놀이	놀이는 유아의 웰빙, 발달과 학습의 핵심이다.

자료: Early Years Education Policy Unit. Siolta, National quality framework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Full & Part time daycare user manual. pp. 6-9 일부를 번역함(<http://www.siolta.ie>에서 2015.11.2 인출).

〈표 7〉 Siolta 요소(Component) 6.1의 구성

요소 6.1

유아는 놀이/탐구의 환경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 이러한 놀이활동은 일과의 중심이 된다.

→ 일반적으로 생각해볼 단서

6.1.1 일과 중에 어느 정도 시간을 놀이에 할애하는지, 구조적인 활동인지, 성인 혹은 유아가 주도적으로 하는지, 실내/실외에서 하는가?

★ 생각해 볼 거리

- 구체적인 사물과 놀이
- 상호적인 이야기 시간
- 노래와 리듬
- 춤과 음악
- 상징적 놀이
- 창조적 놀이
- 게임
- 놀이 시간이 일과 중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가지도록 하기
- 놀이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일상적 활동(휴식, 점심, 정리시간 등)하기

자료: Early Years Education Policy Unit, Siolta, National quality framework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Full & Part time daycare user manual. p. 51 일부를 번역함(<http://www.siolta.ie>에서 2015.11.2 인출).

들이 하위에 오는데, 예를 들면 ‘놀이’ 기준 하위에는 7개의 요소가 있다. 첫 번째 요소는 ‘유아는 놀이/탐구의 환경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 이러한 놀이 활동은 일과의 중심이 된다’로 이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단서를 〈표 7〉과 같이 제공한다.

## 5. 시사점

아일랜드 교육(복지)법 2000은 부모나 보호자가 아동을 6세가 되는 시점부터 인가받은 학교에 의무적으로 다니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6세 미만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다니는 것은 오랜 전통이다. 4세아의 약 50%와 5세아의 거의 대부분이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다. 아일랜드 교육기술부의 전반적인 목적은 인구학적 변화에 맞추어 교육 공간(place)을 확장하는 것, 질 높은 교수 및 보조 스태프를 조성하는 것, 증거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위해 적절한 지표들

을 수집하는 것, 최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질적인 연구를 촉진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아일랜드의 유아교육과 보육 서비스는 80% 정도가 사립기관에 의존하고 있으며 매우 다양한 종류의 기관이 존재하고 있다. 최근에는 무상 프리스쿨 제도를 도입하여 모든 유아에게 일정한 시간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교육·보육료로 인하여 접근성이 떨어지고 부모가 재정적 부담을 가지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기관의 종류는 다양하나 모든 기관은 유아교육법령에 의해 동일하게 규제를 받는다. 또한 Siolta와 Aistear를 기본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어 교육과정의 질 제고에 힘쓰고 있다. 모든 유아교육·보육기관을 대상으로 기관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유아교육법령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평가하며, 평가결과를 웹사이트에 공개하는 등 환류 시스템을 통해 지속적인 질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일랜드 유아교육과 보육의 또 하나의 큰 특징은 의무교육 연령보다 유아가 먼저 초등학교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이는 4세부터 초등학교 내에 있는 유아학급을 이용하기 때문이다. 유아학급은 초등학교 내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유아청소년업무부의 관할이 아니라 초등학교를 관할하는 교육기술부에 속하는 영역이다. 유아학급의 교사가 모두 초등학교 교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도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아일랜드 유아교육·보육은 통합된 상태라고 할 수 없으며 동일 연령의 유아라 하더라도 이용하는 기관에 따라 유아청소년업무부나 교육기술부의 관할 하에 있다.

관련 부처는 상이하지만 0-6세까지 교육과정의 프레임(Aistear)은 서비스 유형에 관계없이 동일하여 놀이의 중요성, 학습과 언어를 강조하고 있으며, 국가 질 관리 체계(Síolta) 또한 신생

아부터 6세 유아가 있는 모든 종류의 유아교육·보육기관(early childhood care and education, ECCE)의 질 개선에 대해 정의내리고, 평가하는 방식으로 교육과정과 질 관리 체계가 일원화되어 있다. 아동청소년부(Department of Children and Youth Affairs, DCYA)는 이러한 법률과 관련 정책을 개발하는 책임을 맡고 있으며, 아동가족국은 프리스쿨 보육서비스를 점검하고, 규제하며 프리스쿨을 선택하는 안내서를 발간하는 등 부처 간 공조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아일랜드의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의 특징인 취학 전 2년간 공교육 시스템 안에서의 의무교육 이행, 0-6세 유아교육·보육과정, 질 관리 시스템의 통합 운영 등은 우리나라에서 현재 진행 중인 유보통합의 추진 과정, 향후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의 방향 조망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